

평생학습 활성화 '담론의 장'

전주시, 내달 5일 평생학습포럼 개최 기조강연·주제별 세션 발표 등 진행

대한민국 대표 평생학습도시인 전주시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담론의 장을 연다.

전주시는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학습 담론 생산과 평생학습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2019 전주평생학습포럼'을 개최한다.

시와 평생학습타임즈와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가 협력해 마련한 이번 전주평생학습포럼은 '지역사회와 평생학습'을 주제로 평생학습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김창영 이주대 교수가 '지역사회발전과 평생교육의 연리지'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진 주제별 세션 발표 시간에는 신민선 서울여대 겸임교수와 채우공 명지전문대 교수, 양문영 오산시 평생교육사가 각각 '지역사회 교육기관과 평생학습관의 관계망 형성'과 '지역사회 평생교육사의 역할 촉진과 활동기반 조성',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와 토대 구축을 위한 키파이 트기'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주제발표 후에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토론자들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도 펼쳐진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성숙한 성장을 돕고,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

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4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으며, 그간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이에 대해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평생학습 포럼을 통해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평생학습 정책방향에 깊이 있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생학습포럼은 평생학습이나 배우고 공부, 평생학습에 관심 있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문화점 홈페이지 전주평생학습관 홈페이지(e.jonju.go.kr) 또는 전화(063-281-5367)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자봉센터 '볼런투어' 진행

사단법인 전주지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25일 외국인 유학생과 전북권 대학생으로 구성된 선행주자봉사단과 함께 자원봉사(볼런투어)와 여행(투어)을 결합한 '볼런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외국인 유학생과 전북권 대학생으로 구성된 선행주자봉사단 40여명은 서노송예술촌(서노송동 소재) 일대에 거주하는 에너지 소외계층 5가구에 연탄 1,000장을 전달하는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어서 전주시의 문화재생사제로 주목받고 있는 서노송예술촌과 시민과 행정이 함께 주도하여 전주형 도시역신이 이뤄지고 있는 서노송동 소재 전주시역사센터 탐방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윤상 기자



추위에 모닥불로 향하는 손

전국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며 추운 날씨를 보인 25일 전주 남부시장에서 상인이 모닥불을 쬐며 추위를 달라고 있다.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로 소생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영등동한 마트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심정지로 쓰러졌으나 5분 만에 현장에서 도착한 119구급대원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생했다고 밝혀져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경 40대 남성이 한 대형마트에서 작업 중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주변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 중인 구급상황에 의해 구급대원은 즉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곧 의사로부터 의료지도를 받아 산소공급 등 전문응급처치를 실시하였다. 다행히 환자는 응급처치 5분 만에 자발순환과 의식이 돌아왔으며 신속히 병원에 이송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신용카드 부정사용 60대 검거

완산경찰서가 열차에 두고내린 지갑을 훔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혐의로 60대를 검거했다.

25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60)는 지난 8월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에서 출발하는 KTX에서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훔쳐 9월 22일 까지 해당 카드로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는 등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다운 기자

핸드폰 절도 20대 검거

완산경찰서가 핸드폰을 훔친 혐의로 20대를 검거했다.

25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검거된 A씨(28)는 15일 오후 1시 10분경 완산구의 은행 현금자동기입기에 있던 시가 1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도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추적, 주거지 근처에서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순간적으로 목숨이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선원 5명 승선 군산 김양식장 관리선 전복

구조된 선원 3명 중 1명 사망·2명 실종

군산에서 5명의 선원이 탄 김양식장 관리선이 전북해 3명이 구조되고 2명이 실종됐다. 구조된 3명 중 러시아 국적 선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내국인 선원 박 씨(70)는 끝내 사망했다.

25일 군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김 관리선이 오전 7시 57분경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남서쪽 7.4km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다.

뒤집힌 관리선 위에 올라탄 러시아인 선원 2명과 내국인 1명이 구조되고 2명은 실종상태다. 구조된 내국인

선원 박 씨(70)는 발견 당시 의식불명에 있었으며 구조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러시아인 선원은 "파도가 높아 선박에 돌이 들어와 전복됐다"며 "실종된 나머지 2명은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어선 등 선박 26척과 헬기 4대를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경찰청은 본서와 지역 경찰 등 총 128명의 경찰을 투입해 무너도·장자도·대장도·신시도 등 해안선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관리선은 어제 11시 09분경 24일 오전 출항 이후 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되기 전, 오전 6시까지 어업활동이 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배는 0.5에 불과한 소형으로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파도는 2~3m로 높아 양식장 관리선을 타고 작업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며 "무리한 작업을 시도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전주 대표 15개 공동체들 '한자리에'

은두레공동체 희망연대 축제

전주지역에서 활약중인 15개 대표 공동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다짐했다.

'전주시 은두레공동체 희망연대'(이하 희망연대)는 25일 전주시 도시역사센터 다올마당에서 전주시 15개 희망공동체가 함께하는 '2019 은두레공동체 희망연대 축제'를 개최했다.

전주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다담-이음-희망의 3단계를 은두레공동체를 육성해왔으며, 희망연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완성단계인 희망단계 공동체로 선정돼 활발히 활동해온 15개 공동체로 구성됐다.

희망연대는 이들 15개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은두

레공동체로서의 공동체의식을 잊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결성된 모임으로, 이날 회원 전원이 처음으로 다 함께 모여 축제를 즐기며 친밀감을 다지고, 향후 발전 방안 등에 논의했다.

희망연대 공동대표인 김종만 행복을 나누는 어울림공동체 대표와 양인화 소나무공동체 대표의 환영사로 문을 연 이날 축제는 은두레공동체 및 야오시장은 홍보하는 영상상영 및 사진전, 레크리에이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시의회의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희망연대 회원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노력과 지역을 위한 봉사정신을 격려하고 축하하기도 했다.

또한 15개 공동체 회원들이 함께 즐긴 이날 축제의 레크리에이션도

공동체 회원이 직접 이끌었으며, 함께 나는 먹거리 또한 공동체들이 각각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희망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양인화 소나무공동체 대표는 "이번 행사는 전주시 희망 공동체간의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주형 희망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남 전주시 공동체육성과정은 "이날 행사는 희망공동체가 희망단계 완료 이후에도 은두레공동체 대표모임로서 공동체의식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연결 시스템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희망연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캘리그래피 배움의 열정으로 '후끈'

덕진구 조촌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주민 큰 호응 얻어 전국 방송통신고 학예경연대회서 대상 수상하기도

덕진구 조촌동(동장 양창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인 캘리그래피(감사 양미숙)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캘리그래피반은 올해 3월 첫 개설된 프로그램으로 문화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동에 기존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설된 지 얼마 안된 신규 프로그램임에도 대기자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실력이 일취월장하여 올해 '제39회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벌써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에 수상을 한 박완진 어르신은 "늦은 나이에 주민센터에서 실시

한 자치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실력으로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프로그램 감사 및 회원들과 같이 기쁨을 나누었다.

또한 지난 23일 제22회 전라북도서예전람회에 회원 4명(박완진, 강수연, 민양기, 양선화)이 한국서문화의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으며 시상자들의 작품을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시전을 열고 있다.

양창원 조촌동장은 "평소 캘리그래피에 대한 주민들의 큰 호응과 회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매우 흐뭇했고, 회원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까지 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시민 '인문독서의 장' 제공

건지도서관, 내달까지 '그리스신화 알기' 무료 특강

전주시립 건지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인문독서의 장으로 제공한다.

건지도서관은 지난 9월 마무리된 '2019 건지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의 후속 강의로 '그리스신화 알기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 인문독서아카데미 참여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일상에 계속 유지해나가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그리스신화를 심도 있게 다루게 된다.

이번 강의를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건지도서관(063-281-66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건지도서관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9 인문독

서아카데미' 공모사업에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서양문화로 보는 인문정신'의 기원과 전통'을 주제로 '2019 건지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인문독서아카데미는 강사료와 교재 제작비, 홍보비 등을 지원받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문학, 역사, 철학, 예술을 융합한 15강의 통섭형 인문학 강의를 운영했으며, 총 1011명의 시민이 참여해 일상 속 인문학을 향유했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인문독서아카데미가 끝난 이후에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인문독서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후속강의, 독서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전주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책과 인문학을 즐길 수 있는 독서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월드컵골프장에서 이용객들이 라운딩을 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2인플레이' 허용

전주월드컵골프장

전주시실업재단(이사장 전성환)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전주월드컵골프장을 찾는 이용객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2인플레이'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당일 전화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당일 예약을 했더라도 조인 대기자가 있을 경우 2인 플레이 팀은 의무적으로 조인을 해야 한다. 월드컵골프장은 보다 많은 이용객들에게 라운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 상시 의무 조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월드컵골프장은 2017년부터 추운 겨울철과 무더운 여름철에 한해 한시적으로 2인 플레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용객이 적은 시기에 골프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새벽과 야간 시간대 이용률 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운영시간을 단축한다.

첫 티업 시간을 오전 4시 41분에서 오전 5시로 늦추고, 마지막 티업 시간을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로 앞당긴다.

새벽과 야간 시간대 이용이 거의 없는 휴한기에는 운영시간을 더욱 단축하는 등 예약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